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<b>2018년 12월 20일(조간)부터</b>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<small>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월 19일 11시부터 보도 가능</small>					
배포일시	2018. 12. 19.(총 2쪽)	담당부서	축산환경과		
담당과장	곽정훈 과장 (063-238-7400)	담당자	우샘이 연구사 (063-238-7409)		

## 반려견과 ‘흰 눈 사이로’ 산책하며 건강하게 겨울나기

### - 옷 따뜻하게 입혀 별 쪼며 외출, 염화칼슘 삼키지 않게 주의 -

□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점차 늘면서 추위에도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요령을 소개했습니다.

□ 반려견의 체온은 대개 37.7~39.2°C(도)로, 품종과 체형, 털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하기에 알맞은 온도는 15~26°C입니다.

○ 추운 곳에 오래 있을 경우 귀나 꼬리, 발가락이 동상에 걸릴 수 있으며, 저체온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털이 짧은 품종은 추위에 약하므로 보온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.



<보온을 위해 조끼를 입힌 반려견 모습>

- 동상에 걸리면 주변 부위가 창백하게 변하고, 만지면 아파합니다. 마른 수건으로 동상 부위를 감싼 다음 머리말리개 등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. 온도가 너무 높으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 발병

부위가 어둡게 변했다면 바로 동물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습니다.

- 저체온증은 정상 체온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. 가볍게 나타날 경우 피부가 창백하거나, 떨림, 무기력함, 졸리는 증상을 보이지만, 체온이 많이 떨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바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□ 실내에서 지내는 반려견이라면 바깥 활동 시 보온이 잘 되는 소재의 옷을 입힙니다. 산책은 별을 쪼며 걸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 계획적으로 합니다.



○ 집 밖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은 휴식처를 따뜻하게 해줍니다. 덮개나 방풍 비닐을 외부에 덮어 보온이 되게 하고, 내부에는 깔개를 깔아줍니다. 휴식처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, 체온 유지로 에너지 소모가 큰 만큼 사료량은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.

□ 겨울에는 염화칼슘과 부동액을 뿌려 제설하는 도로가 많은데, 이로 인해 반려견의 발바닥이 다치지 않도록 장화를 신기면 도움이 됩니다.

○ 또한, 염화칼슘과 부동액을 삼켰다면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힘이 없거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지 눈여겨봅니다.

○ 외출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털을 닦아줍니다. 특히,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의 멍친 눈과 물기도 모두 닦아내야 발을 활아도 염화칼슘이나 부동액이 함께 묻어나지 않습니다.

□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곽정훈 과장은 “간단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반려견과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, 사용하지 않는 반려동물의 옷이나 이불류를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기부한다면 다른 동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.”라고 전했습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우샘이 농업연구사(☎ 063-238-74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